

3. 타지펠의 사회 정체감 이론 (수능 특강 p.44)

단락 분석

(1단락)

①사람들은 타인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여기는 사회 범주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도식, 정서 등을 적용하고, 자신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에게 적용한다. ②어떤식으로든 편이 갈리면 사람들은 어느 편이냐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③사회 심리학자 타지펠은 이러한 차별 현상에 대해 연구하여 '사회 정체감 이론'을 정립하였다.

- ① 첫 문장에서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어. 키워드는 **사회 범주화**. 타인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여기면 그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 등을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적용하고, 자신을 특정 집단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면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에게도 적용한다는데? 잘 모르던 사람이 나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왠지 모르게 더 친숙하게 여기게 되잖아? 그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이렇게 편이 갈리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편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어.
- ③ **타지펠**이라는 심리학자가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연구했나봐. 앞으로는 '사회 정체감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해줄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은데?

(2단락)

①타지펠은 사회적 행위를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로 설명했다. ②대인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속성인 이름, 성격, 태도, 지능 등을 바탕으로 다른 개인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위이고, 대집단 행위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특성인 인종, 성, 학력, 출신지, 직업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모든 사회적 행위는 이러한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④어떤 행위가 어느 쪽으로 기운 것인지는 여러 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⑤첫째는 집단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명확하게 부각되는가이다. ⑥가령 노사 대표가 교섭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들은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들보다 대집단 행위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⑦둘째는 집단 내에서 성원들의 태도, 행위, 의견 등이 얼마나 통일되어 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가이다. ⑧이익 집단들은 성원들의 입장이 유사하다. ⑨한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두 이익 단체들 간의 대립은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⑩셋째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을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동일시 하지 않는 집단인 외집단의 성원에 대하여 지닌 고정 관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이다. ⑪외집단 성원에 대한 고정 관념의 강도가 강할 때 그 성원에게 보이는 행위는 고정 관념의 강도가 약할 때 보이는 행위에 비해 일반적으로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⑫이와 같은 변인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① 뜬금없이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네. 둘로 나누어 설명할 건가봐.
- ② **대인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동, **대집단 행위**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위. 첫 번째는 내가 친구와 사적으로 교류할 때, 두 번째는 내가 학생으로서 선생님과 교류할 때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
- ③ 우리가 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는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 ④ 내가 대인 행위를 할지 대집단 행위를 할지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치는 **변인**(=요인, 변수, 원인)에 대해 설명하러나봐.
- ⑤ 첫째, **집단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부각되는가**.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지?
- ⑥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노동자 대표와 고용자 대표가 교섭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들은 친구끼리 밥먹을 때와는 다르다는 얘기네. 당연히 대표로서 행동하려 하겠지. 그리고 그 때 나오는 행동이 대집단 행위!
- ⑦ 둘째, 같은 집단 내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었는지, **다른 집단과 차이**가 뚜렷한지. 예시가 필요할 거 같은데?
- ⑧ 이익 집단을 예시로 들고 있어.
- ⑨ 어떤 한 정책을 두고 이익 집단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구성원들끼리 대집단 행위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봐. 사실 위의 노사 간에 최저임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익 집단 간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
- ⑩ 셋째, 나와 **다른 집단(=외집단)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 ⑪ 고정관념이 강할 때, 일반적으로 대집단 행위를 하게 된다. 만약 우리 옆 집 아저씨가 내가 다니는 대학 학과의 학과장 교수님이라면? 이웃 아저씨 대하기 보다는 학생으로서 교수님 대하듯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납득할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문장에 **'~비해'**라는 비교 서술이 쓰였어. 비교 서술은 항상 체크해놓자. 선지에서 물어볼거야.
- ⑫ 이상 위의 세가지 변인들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도 내가 속한 내집단,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외집단)을 **구분하여 행동**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네. 1단락에서 '사회 정체감 이론'이라는 것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 보이는 차별현상을 연구한 이론이라고 했으니 연결해서 이해해보자. 문단이 끝날 때마다 자주 이전 문단과 연결지어 요약하는 습관이 실전에서도 중요!

(3단락)

① 내집단은 자기 자신이 소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의 구성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이다. ② 이러한 내집단을 외집단과 구분하는 것은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을 초래한다. ③ 이는 타지펠의 최소 집단 상황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을 점의 숫자를 많이 추정한 사람과 적게 추정한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자막에 찍힌 점의 숫자를 세는 과제를 주었다. ⑤ 그런데 실제로는 과제 수행 결과와 관계없이 임의로 피실험자들을 집단에 배정했다. ⑥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만난 적이 없고, 만 날 기대도 하지 않는 관계이다. ⑦ 이른바 '최소 집단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의 성원 한 명과 상대 집단 성원 한 명에게 돈으로 환산되는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⑧ 이 결과 피실험자들 중 84%가 자기 집단 성원에게 상대 집단성원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⑨ 이에 대해 내집단 성원과는 교류 가능성이 높고 우호적인 행위가 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집단 선호 경향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은 최소 집단 상황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 ① 내집단을 정의하고 있어. 외집단이란 반대겠지 뭐.
- ②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면 '차별적 편애(편중된 애정) 현상' 이 일어난대. 말만 잘 뜯어봐도 대략 앞으로 무슨 얘기할 지 감이 오는데? 아마 내집단 사람들끼리 더 아끼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 ③ 타지펠이 직접 실험해봤대. '최소 집단 상황 실험'
- ④ 피실험자들을 과제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두 집단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과제를 주었네.
- ⑤ 근데 실제로는 과제결과와 상관없이 집단을 나눴대. 실험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네.
- ⑥ 같은 집단 사람들끼리는 실제로 전혀 안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실험 후에도 다시 볼 일 없는 사이인가봐. 결과적으로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다시 볼일도 없는 사람들끼리 집단이 된 거지.
- ⑦ 위 같은 집단을 '최소 집단 상황' 이라고 하나봐. 아무튼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집단 사람 1명, 다른 집단 사람 1명에게 각각 점수를 부여하라고 했다. 부여된 점수만큼 돈을 준다고 하고.
- ⑧ 그랬더니 대다수의 실험 참가자들이 같은 집단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준 거지. 실제로는 다른 집단 사람과 아무 차이도 없는 사람인데. 차별적 편애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겠지?
- ⑨ 위 실험에 대해 예상되는 반박을 제시하고 있어. 아무래도 같은 집단 사람끼리 계속 교류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점수를 많이 준 거 아니냐! 하지만 아까 ⑥문장에서 말했듯이 다시 볼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굳이 반박처럼 점수를 많이 준 이유는 없는 거지.

(4단락)

① 타지펠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모습에 자긍심을 갖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서도 자긍심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교류 가능성이 없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도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② 그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서 얻고자 하는 자긍심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③ 이와 같은 사회 정체감 이론의 설명은 두 가지를 전제로 삼고 있다. ④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자기정체감을 지니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⑤ 둘째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 정체감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며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자기 정체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⑥ 그런데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⑦ 개인이 집단을 대할 때 개인 정체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사회 정체를 취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⑧ 왜냐하면 사회 정체를 취할 때 그 집단의 규범에 맞추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⑨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 내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의 기회를 가진 성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고양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① '~때문에' 라는 표현이 있으니 인과! (4단락은 비교와 인과가 많이 쓰이고 있어.) 위 단락에서 설명한 차별적 편애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타지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같은 집단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준 이유가 같은 집단 사람이나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한 자신이 자긍심을 얻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집단을 가치를 높이려고 그랬던 거래. 재미있는 이론이네?
- ② '~보다' 는 항상 체크(비교 서술). 내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사회적 자긍심이 생기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
- ③ 이번에는 사회 정체감 이론의 두 가지 전제에 대해 이야기할 건가봐. 읽다보니 이 지문 참 복잡하고 길다...
- ④ 첫째,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 자기 정체감(→ 자존감)을 지니고자 한대.
- ⑤ 둘째, 자신이 속한 집단이 사회 정체감을 제공하며 자신의 집단(내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자긍심을 느낀대. ②문장과 거진 동일한 설명이야.
- ⑥ 차별적 편애 현상이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래.
- ⑦ 개인 정체를 취할 때도 있고, 사회 정체를 취할 때도 있는데(아까 대인 행위, 내집단 행위 기억나지? 꼭 연결지어서 이해해야해!) 개인 정체를 취할 때는 차별적 편애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Legal Mind] EBS analysis

- ⑧ 사회 정체를 취할 때, 그 집단(=개인이 속한 내집단)의 규범에 맞추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면(인과 체크하기), 개인 정체를 취할 때는 내집단의 규범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겠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대학교 동아리에는 가입했으나, 동아리 규칙을 지킬 생각도 없고 동아리 활동에도 별 관심이 없다면 내가 속한 동아리에 대한 애정도 그리 생기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동아리 규칙에 따라 참여도 해보고 동아리 회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면 점차 내가 속한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에 비해 좋은 점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하고, 동아리에 대한 애정과 그 동아리에 속한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지.
- ⑨ 위 예시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에 차별적 편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존심(아마 사회적 정체감이겠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기서도 비교 서술 체크하자. (~보다) 내년엔 대학교 가면 동아리나 모임 하나쯤은 가입해서 활동해보자!

(5단락)

①사회 정체감 이론은 자기 범주화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②자기 범주화 이론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부각되는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 ③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취하는 범주 혹은 무리의식에 따라 그 범주가 지닌 특징들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그가 취한 범주를 고려해 상대방의 특징을 파악하는 양상을 보인다. ④이는 사회 정체감 이론처럼 개인적 정체와 사회적 정체와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 ① 마지막 단락. 자기 범주화 이론도 소개하고 있어.
- ② 문장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자기 범주화 이론은 특징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 ③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 자신이 취하는 범주 혹은 무리의식이 지닌 특징들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을 이해할 때에도 타인이 취한 범주를 고려해 상대방의 특징을 파악한다. 1단락으로 돌아가볼까? 1단락 첫번째 문장과 거의 비슷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어.(수미상관인가...)
- ④ 자기 범주화 이론의 전제이자 사회 정체감 이론과의 공통점에 대해 말하고 있어.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은 구별될 수 있다. 마지막 단락은 뭔가 좀 영성하게 끝맺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마도 수능에서 이 지문이 연계되어 나온다면 자기 범주화 이론에 대해 더 설명하는 지문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만약 연계되어 나온다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에 대해 잘 이해하고 넘어가자!

구조도 정리

타지펠의 '사회 정체감 이론'	
연구 주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사회 범주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집단을 더 편애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을 연구.
연구 내용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사회적 행위(=타인과의 교류)의 성격을 결정함(대인 행위인지 대집단 행위인지 결정). →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에 의해 '차별적 편애 현상'이 초래됨. - 차별적 편애 현상: 내집단을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적으로 선호하는 현상. → 차별적 편애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 정체감(사회 정체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낌.
관련 이론	자기 범주화 이론

배경지식 더하기

자아

개인의 독특한 신체적, 심리적 특성의 결합체

자아 개념 (self-concept)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학업능력, 외모, 가족, 감정 등 포괄적). 긍정적, 부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아 정체감 (ego-identity)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총체적, 함축적,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 이때의 나는 시간을 흘러도 불변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나의 정체성을 뜻함.

자아 존중감(자존감) (self-esteem)

자신의 자아 개념에 대한 스스로의 정서적 평가.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특정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